

도시공원 15곳 매입 1조7천억 필요한데...

국토부 도시공원 일몰제 지원 실효성 의문

광주시 채무액 1조 육박...2019 세계수영 1조166억 지방채 추가 발행엔 채무액 '재정위기 주의' 수준 예상 전문가 등 "100만㎡ 이상 공원 정부 직접 지원 있어야"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국가공원 지정 등을 통한 직접 예산 투입 대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일부 고층 아파트 개발 나머지 보존' 방식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의 사유화, 시민 편의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우선관리지역을 선정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결국 지자체의 부담만 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채무액은 1

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계수영대회 개최, 공원일몰제 도입 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채무액은 더 증가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 재정으로는 2023년까지 16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단계 4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광주의 대표공원인 중앙·일곡·중외 등이 포함된 2단계 6곳은 공공개발로 하더라도 나머지 15개의 도시공원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 연도별 채무잔액은 지난 2011년 7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532억원, 2013년 7987억원, 2014년 8922억원, 2015년 9754억원, 2016년 9550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이 6.11%로,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설정한 3.7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11년 20.75%, 2012년 20.65%, 2013년 20.07%, 2014년 21.50%, 2015년 21.69%, 2016년 21.5%로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수영대회가 열리는 2019년에는 채무액이 1조166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특별·광역시 시가 채무비율을 25%까지 올리면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면 4조4000억원이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광역시에 있는 우선관리지역(28.9㎢)의 보상비는 6조4000억원에 달한다. 보통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시가 지방채 발행 액수를 더 늘리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진상 동신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들 공원을 모두 매입하는데 1조7000억원 이상이, 주요 공원의 일부만 매입할 경우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면적이 300만6000㎡인 중앙공원은 물론 중외공원(243만9131㎡), 일곡공원(106만6166㎡) 등 100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1단계 대상 송암·마곡·수랑·봉산 등 4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2단계 대상인 중앙·일곡·중외공원 등 6곳은 제안서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공공성 강화 등을 놓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시는 우선 이들 6개 공원의 개발면적을 10% 미만으로 축소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이 아닌 공공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남북 핫라인 설치 20일째 완료...정상 간 통화날짜는 미정

남북정상회담 D-9

靑 "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회담 이전 방북할 수도"

청와대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필요할 경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20일째 완료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상 간 통화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도 장소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정원 차원의 소통이 항상 원활히 열려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 원장과 정실장의 평양 방문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정상회담 준비가 원만히 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를 놓고 판문점 회담 형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열려 있다는 뜻"이라며 "사전에 합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거나 실무 논의가 난항에 처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정상 간 핫라인은 실무적으로 20일째 연결될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상 간 통화를 언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핫라인은 당연히 정상에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내일 열릴 의전·경호·보도 관련 2차 실무회담에서는 꽤 많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실무회담에서 많은 사안이 조정되면 고위급회담 날짜를 잡겠지만, 필요하다면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이번 회담은 일체의 의견을 생략하고 의제에 집중할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며 "4·27선언이 될지 판문점 선언이 될지 모르지만 뼈대를 마련해 대통령과 세 차례 검토했고, 고위급회담을 거쳐 정상 간 조정을 통해 합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과 합의문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괄적 형식으로 답을 예정"이라며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남북교류 같은 부분은 담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간 합의 내용과 땀 수 없어서 북미가 다룰 의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비핵화 부분은 특사단이 방북 과정에서 확인했다더라도 정상 간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며, 비핵화 의지 확인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핵 폐기의 의지 확인에 따라 북한이 상응하는 요구를 미국이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가 관심이듯이 남북 정상은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그래서 이번 회담을 길잡이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핵화가 남북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당일 동선은 당일까지 확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원하지만 이 역시 마지막까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강진의료원에 개원

전남도 내달 1일

전남도의 대표 출산 지원 시책인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이 다음 달 1일 강진의료원에서 개원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2호점은 의료원 내 산부인과와 연계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강진의료원에 600여㎡ 규모로 신축해 10개의 산모실, 신생아실, 건강실, 좌욕실 등을 갖췄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뒤 안락한 산후조리를 하도록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모자동선은 물론 신생아실에 바깥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양압 격리실 등을 운영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20여평 규모의 산모 돌봄센터를 별도로 뒤오

가, 산후관리 교육,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산모를 위한 전용 산모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결혼이민자 산모에게 통역과 수유교육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용료는 2주에 15만4천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은 이용료의 70%(107만8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열악한 농어촌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핵심 공약으로 추진했다.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1호점을 개원해 현재까지 700명 이상 산모가 이용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9월부터 0~6세 아동수당 10만원씩 지원

3인 가구 월소득인정 1170만원 이하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시행되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오월 월 1170만원 이하일 경우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6월 29일까지 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이앙·직파 가뭄피해보험은 5월 8일까지

A씨는 신안 일대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지난해 벼 재해보험으로 1ha 보험료 40만원 가운데 20%인 8만원을 내고 가입했는데, 가뭄 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무려 62배인 49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전남도는 17일 농민들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 재해보험은 오는 6월29일까지 지

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 가입 신청해야 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이앙·직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전남도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등 700여원을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여기에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올해부터 보험료 5% 할인제도가 신설돼 농가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지방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씩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드립시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